

2025  
이감 인사이트

# insight

2026학년도  
성공적인 수능을 위한  
이감의 **수능분석자료집**



# I

## 주요 데이터 분석

### 등급컷 / 오답률 TOP 10

#### [등급컷 분석]

등급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4학년도 대수능	2025학년도 대수능 예상 등급컷		
	평가원	평가원	EBS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1	100/97	86/83	93/91	93/91	94/92
2	96/93	78/76	87/85	85/84	87/85
3	88/86	70/67	79/77	76/75	79/77
4	78/76	60/58	69/67	66/65	69/66
5	67/64	51/48	56/54	52/51	57/55
6	49/48	40/39	42/40	35/33	44/42
7	30/28	31/29	31/29	23/22	33/31
8	20/19	22/20	23/21	19/18	22/20

※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순서로 점수를 기재함.

- 01 예상 등급컷을 고려했을 때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지만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다. 시험지의 형식만 보았을 때는 9월 모의평가에 가까운 난도로 보기 쉽지만, 이는 수능 당일 수험생들의 시험 운용과 풀이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 평가에 불과하다. 매우 평이하게 출제된 언어 영역의 난도가 조금만 높았다면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버금가는 어려운 시험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02 결과적으로 이번 '화법과 작문'의 난도와 '언어와 매체'의 난도는 모두 평이했다. 그 영향으로 선택과목 간 등급컷의 격차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택과목 간의 유불리를 좁히려는 평가원의 의도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이 평가원이 어느 정도까지 의도한 결과인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 선택과목의 경우 예비 수험생들이 해당 영역을 소홀히 하는 비합리적인 경향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화법과 작문만 어렵게 출제될 수도, 언어와 매체만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작년 수능처럼 둘 다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폭 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되도록 어렵게 출제될 것을 대비하는 편이 이롭다.

## [2025학년도 대수능 국어 오답률 TOP 10\_화법과 작문]

(홀수형 기준 / %는 반올림한 값임)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8	독서	3	80%	①	20%	26%	16%	26%	12%
2위	7	독서	2	72%	②	7%	28%	33%	13%	19%
3위	16	독서	3	68%	②	16%	32%	20%	22%	11%
4위	13	독서	3	56%	③	6%	11%	44%	17%	22%
5위	18	문학	2	52%	②	10%	48%	23%	9%	11%
6위	21	문학	3	49%	④	6%	5%	24%	51%	14%
7위	20	문학	2	48%	①	52%	4%	21%	12%	11%
8위	11	독서	2	46%	①	54%	7%	19%	15%	5%
9위	5	독서	2	45%	⑤	6%	18%	13%	9%	55%
10위	34	문학	3	45%	②	5%	55%	19%	15%	5%

독서 6      문학 4

- 01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6문항, 문학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 수능 오답률 TOP 10이 독서 4문항, 문학 4문항, 화작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화법과 작문’이 특히 평이하게 출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년에는 ‘화법과 작문’에서 오답률 65%의 문항이 2개 출제되었다.]
- 02 오답률의 분포에도 주목해야 한다. 작년 수능의 경우 가장 높은 오답률이 70%였는데 올해에는 80%로 10%p 높아졌다. 반면 오답률 10위 문항의 오답률은 14%p 낮아졌다. 즉 1등급을 결정짓는 소수의 문항들의 난도는 작년보다 높아졌지만 그 밖의 문항들의 난도는 작년보다 낮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03 독서 영역에서는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에서 3문항[→ 5, 7, 8번], 기술 지문에서 2문항[→ 11, 13번], 사회 지문에서 1문항[→ 16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최근 평가원 모의평가에서는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이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었는데, 올해 수능에서는 이례적으로 앞쪽에 배치되었다. 그래서 주제통합형 지문을 가장 먼저 풀, 즉 배치된 순서대로 푸는 습관을 들인 수험생들은 상당히 버거웠을 것이다. 다만 이를 교훈 삼아 지문 배치와 무관하게 주제통합형 지문을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겠다고 판단하는 것도 항상 옳지는 않다. 결국 1년 동안 수차례의 훈련을 거쳐 본인에게 적합한 풀이 순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04 문학 영역에서는 고전소설에서 3문항[→ 18, 20, 21번], 고전시가에서 1문항[→ 34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오답률의 분포만 보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고전소설의 4문항 중에서 3문항의 오답률이

TOP 10에 포함되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도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들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최근 9월 모의평가까지의 경향에 주목해 문학을 훈련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운용의 측면에서 더욱 낯설고 힘들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 05 각 영역에서의 지문별 세부적인 내용이나 참조할 점에 대해서는 후술되는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에서 설명하겠다.

### [2025학년도 대수능 국어 오답률 TOP 10\_언어와 매체]

(홀수형 기준 / %는 반올림한 값임)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8	독서	3	72%	①	28%	23%	15%	25%	10%
2위	7	독서	2	63%	②	5%	37%	30%	10%	17%
3위	16	독서	3	57%	②	15%	43%	19%	16%	8%
4위	13	독서	3	40%	③	4%	7%	60%	11%	18%
5위	18	문학	2	39%	②	7%	61%	21%	5%	7%
6위	21	문학	3	33%	④	3%	3%	19%	67%	9%
7위	20	문학	2	31%	①	69%	2%	16%	6%	7%
8위	44	언매	2	31%	①	69%	2%	17%	2%	9%
9위	5	독서	2	30%	⑤	4%	13%	8%	5%	70%
10위	27	문학	2	29%	①	71%	10%	12%	5%	2%

독서 5    문학 4    언매 1

- 01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5문항, 문학 4문항, 언매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 수능의 경우 오답률 TOP 10이 독서 3문항, 문학 5문항, 언매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언어 영역이 매우 쉽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년에는 오답률 TOP 10의 2, 3위 문항이 모두 언어 문항이었다.]. 오답률 TOP 10에 포함된 언매 문항도 언어가 아닌 매체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 02 오답률의 분포에도 주목해야 한다. 작년 수능의 경우 가장 높은 오답률이 65%였는데 올해에는 72%로 7%p 높아졌다. 반면 오답률 10위 문항의 오답률은 22%p나 낮아졌다. 즉 1등급을 결정짓는 소수의 문항들의 난도는 작년보다 높아졌지만 그 밖의 문항들의 난도는 작년보다 낮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03 독서 영역에서는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에서 3문항[→ 5, 7, 8번], 기술 지문에서 1문항[→ 13번], 사회 지문에서 1문항[→ 16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최근 평가원 모의평가에서는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이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었는데, 올해 수능에서는 이례적으로 앞쪽에 배치되었다. 그래서 주제통합형 지문을 가장 먼저 풀, 즉 배치된 순서대로 푸는 습관을 들인 수험생들은 상당히 버거웠을 것이다. 다만 이를 교훈 삼아 지문 배치와 무관하게 주제통합형 지문을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겠다고 판단하는 것도 항상 옳지는 않다. 결국 1년 동안 수차례의 훈련을 거쳐 본인에게 적합한 풀이 순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04 문학 영역에서는 고전소설에서 3문항[→ 18, 20, 21번], 갈래 복합에서 1문항[→ 27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오답률은 작년 수능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였는데, 이는 난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달라졌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난도와는 별개로 최근 9월 모의평가까지의 경향에 주목해 문학을 훈련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운용의 측면에서 다소 낯설고 힘들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 05 각 영역에서의 지문별 세부적인 내용이나 참조할 점에 대해서는 후술되는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에서 설명하겠다.

# II

##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

### 공통과목 : 독서

#### 01. 출제 경향

##### ▶ 총평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지만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운, 적정 난도의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에 의해 변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6월 모의평가와 닮았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글의 흐름이 평이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부담은 덜했을 것이다. 독서 지문들의 배치 순서와 관련하여 특이 사항이 있기는 했지만, 그 밖에는 구성상 특별히 새로운 점은 없었다. 올해 평가원의 경향을 종합해 본다면 6월 모의평가의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을 제외하면, 느슨하고 평이하게 지문을 구성하여 부담을 줄이되 선지의 조어 방식[→ 7번], <보기>의 자료 해석 요구[→ 8, 16번] 등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난도를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했을 때에 평이한 지문과 까다로운 선지의 기초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앞선 평가원 시험들에 비해 실질적인 연계 체감도는 매우 낮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6학년도에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수능에서는 앞선 모의평가들에 비해 연계 체감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경향은 물론 이러한 새로운 경향 역시 2026학년도 이감국어 교육연구소의 콘텐츠에 반영될 예정이다.

##### ▶ 지문 평가

-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를 포함해 올해 수능 이전까지의 다섯 번의 평가원 시험에서는 시종일관 독서론[→ 1~3번]으로 시작하여 주제통합형[→ 12~17번]으로 끝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독서론에 이어 주제통합형[→ 4~9번]이 배치되는 구성을 취하였다.
- 독서론은 예상대로 변별력에 초점을 두는 대신 정답 선지들이 모두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구성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 집중했다. 가령 3번 문항에서는 지문에서 덜 강조된 ‘독서 목적’에 대한 이해를 평가했는데[→ 관련 내용은 문단3에서 ‘이때 주요한 정보는 독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라는 문장으로 한 차례만 다뤄졌다.], 그럼에도 정답 선지를 매우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충분히 확신을 갖고 정답 선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은 '개항 이후 조선에서의 개화 논의와 청일 전쟁 이후 중국에서의 과학 정신 논의'를 주제로 수능특강 71쪽이 연계되었다. 8번 문항의 경우 불명료한 근거에 의존해서 선지들의 정오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심적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 기술 지문은 '확산 모델을 활용한 원본 이미지 복원'을 주제로 수능특강 170쪽이 연계되었다. 연계 지문에 언급된 확산 모델의 학습 방식에 해당하는 '지도 학습'이라는 개념어를 제외하면 전부 낯선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연계 체감도는 매우 낮았을 것이다. 다만 이감국어교육연구소에서는 수능특강 170쪽에 기반하여 지도 학습에 해당하는 수많은 모델들을 올해 모의고사와 간쓸개를 통해 다루었으므로, 꾸준히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사회 지문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주제로 수능특강 38쪽이 연계되었다. 나머지 지문들의 경우 적어도 연계 지문과 직접 닿아 있는 내용에 기반했다면, 해당 지문의 경우 문단2까지 해당 연계 지문에서 다룬 '리프킨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내용을 피상적으로 다루다가 문단3부터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적 견해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연계 체감도가 가장 낮았을 것이다. 다만 평가원은 비교적 꾸준히 이러한 폭넓은 연계 양상을 보여 왔다. 대표적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도 정치학에서의 과두제를 언급한 연계 지문의 내용에 기반하여 '과두제적 경영'을 주제로 한 경영학 지문을 출제할 바가 있었다.

▶ 문항 평가

-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선지의 길이도 짧은 편이었고, 선지가 묻고자 하는 바도 명료했다. 따라서 선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8번, 16번 문항과 같이 해석하기 까다로운 <보기> 상황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의 평가원 시험들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문항 구성 측면에서의 특이 사항은 없었다.

## 02. 지문 분석

### [4~9] (인문-인문) 개항 이후 조선에서의 개화 논의와 청일 전쟁 이후 중국에서의 과학 정신 논의

주목해야 할 지문 (2025학년도 대수능 대비) : 중요도 B

- 전형적인 관점 중심의 글로, (가)에서는 개항 이후 '개화'의 개념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면 (나)에서는 청일 전쟁 이후 '과학 정신'의 개념이 각 학자들에 의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를 다루었다. 객관적으로 독해 부하가 높은 글은 아니지만 오히려 관점들이 느슨하게 나열되고 있다는 점에서 글의 초점을 명료하게 파악하기 힘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되었을 것이다. 글의 초점이 불명료할수록 그만큼 정보들을 처리할 기준도 불명료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일수록 어느 정도는 기계적인 정보 처리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정보 처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감으로 기출 독서』 '지문 분석'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71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척사, 박은식’이 해당 지문에서는 부수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가)의 일부 문단을 제외하면 연계 지문이 전혀 다루지 않은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내용적 난도와는 별개로 처리하기 까다로운 나열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버거웠을 것이다.

### [10~13] (기술) 확산 모델을 활용한 원본 이미지 복원

**주목해야 할 지문 (2025학년도 대수능 대비) : 중요도 AA**

-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활용되는 ‘확산 모델’의 원리를 ‘복원’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모범적인 기술 지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지문에 대한 모범적인 독서 전략은 이미 10번 문항의 적절한 선지들에 나열되어 있다. ‘확산 모델’의 구성을 전제로, ‘순확산 과정’에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어서 ‘역확산 과정’에서는 목표 작업[→ 이미지 복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장을 까다롭게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허투루 읽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긴장을 요하는, 독해 부하가 제법 있는 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170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지도 학습’이 해당 지문에서는 부수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물론 전체적으로 확산 모델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 학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나, 관련 이해를 직접적으로 묻는 선지는 없었다는 점에서 연계 지문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연계 대비가 어려웠을 것이다. 연계 학습을 목적으로 연계 교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감 모의고사나 간쓸개 등, 해당 지문과 유사한 소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는 지문들을 충분히 접해 보는 것의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 [14~17] (사회) 사이버 폭력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주목해야 할 지문 (2025학년도 대수능 대비) : 중요도 A**

- 문단2까지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측면에서 리프킨의 견해를 다룬다면, 문단3부터는 ‘법학’의 측면에서 인터넷 ID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다룬다. 서로 다른 분야의 두 대목이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과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라는 연결 고리로 전개되지만 그래도 구성의 측면에서는 특이하다. 문단4에서 대법원, 다수 의견, 소수 의견[→ ㉠, ㉡, ㉢]을 구분해서 읽어 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정보량의 밀도가 낮고, 내용의 깊이도 얇은 편이었으므로 독해 부하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을 것이다.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38쪽의 핵심 개념소인 ‘사회적 상호 작용, 리프킨’이 해당 지문에서는 부수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문단2까지 해당 내용을 다루기는 하지만 관련 내용은 단순 내용 일치 문항인 14번 문항에서만 묻고 있으며 글의 초점에 그다지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느슨한 연계를 의식하여 이감국어교육연구소에서는 올해에도 연계 지문들과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폭넓은 지문들을 간쓸개에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하였고, 실제로 ‘사이버 폭력과 연결되는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대한 논의’를 다루는 지문을 수록하였다.

경로 설계

발문[→ 전형적인 발문이었다면 여기에도 ㉠~㉣가 포함되었을 것이다.]과 선지의 구성을 고려했을 때 문단4에 제시된 ㉠~㉣의 관점들을 토대로 A, B, C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 즉 선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지문에서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의 입장이 어떻게 구분되었는지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즉 ㉠, ㉡는 비교적 비슷한 입장이고, ㉢는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강한 입장이다.

㉠ 대법원	㉡ 다수 의견	㉢ 소수 의견
실명을 거론했거나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 성립	인터넷 ID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 성립	인터넷 ID의 사용자를 제3자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가해자의 법적 책임 성립

**[참고]**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의문들을 해소하고 가면, 여기서 ㉠과 ㉡의 견해는 실질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은 인터넷 ID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인 견해라면, ㉡는 인터넷 ID와 관련된 헌법 소원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일치하기 때문이다. ㉢의 경우 지문에는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제3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항상 성립함’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앞에 인터넷 ID가 실명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이다. 즉 ㉢는 인터넷 ID를 사실상 실명과 동일한 지위에 둬으로써, 인터넷 ID를 언급한 것은 그 자체로 실명을 거론했 것과 같은 수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보기> 설명

○○ 인터넷 카페의 이용자 A는 a, B는 b, C는 c라는 ID를 사용한다. 박사 학위 소지자인 A는 □□ 전시관의 해설사이고, B는 같은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혼자 전담한다.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 전시관에서 A의 해설을 듣고 A의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A의 해설에 대한 후기

↳ **b**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A는 #-#.

↳ **a** □□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

↳ **c**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

(단, ‘#-#’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이고 A, B, C는 실명이다. ID로는 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으며, A, B, C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우선 헷갈리지 않으려면 A, B, C는 ‘실명’이고 a, b, c는 ‘인터넷 ID’임을 분명히 구분한 채로 정보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달린 댓글의 순서대로 판단하자면 B는 A의 실명을 거론했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 판단은 다음과 같겠다.

㉠ 대법원	㉡ 다수 의견	㉢ 소수 의견
A의 실명을 거론했으므로, B의 법적 책임 ○	A의 실명을 거론했어 제3자가 알 수 있으므로, B의 법적 책임 ○	A의 실명을 거론했으므로, B의 법적 책임 ○

**[주목]** 반면 A는 B의 실명을 거론했지는 않았다. 다만 B는 해당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혼자 전담하고 있고, 이 사실이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ID[→ b]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 판단은 다음과 같겠다. 특히 ㉢의 경우 제3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라는 점에도 유의하자.

㉠ 대법원	㉡ 다수 의견	㉢ 소수 의견
지목된 사람이 B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으므로, A의 법적 책임 ○	지목된 사람이 B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으므로, A의 법적 책임 ○	b를 거론한 것은 사실상 실명을 거론한 것과 같으므로, A의 법적 책임 ○

▶ 마지막으로 C는 A의 인터넷 ID[→ a]를 거론하고 있을 뿐, a가 누구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별도의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 판단은 다음과 같겠다.

㉠ 대법원	㉡ 다수 의견	㉢ 소수 의견
A의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았고, 지목된 사람이 A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없으므로, C의 법적 책임 ×	지목된 사람이 A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없으므로, C의 법적 책임 ×	a를 거론한 것은 사실상 실명을 거론한 것과 같으므로, C의 법적 책임 ○

■ 정답 설명 : ②

- 1) ㉠은 A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B의 법적 책임은 인정할 것이다.
- 2) 또한 지목된 사람이 B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A의 법적 책임도 인정할 것이다.

㉠ 대법원	㉡ 다수 의견	㉢ 소수 의견
지목된 사람이 B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으므로, A의 법적 책임 ○	지목된 사람이 B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으므로, A의 법적 책임 ○	b를 거론한 것은 사실상 실명을 거론한 것과 같으므로, A의 법적 책임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 ① ㉠은 A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B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겠지만, a를 거론했을 뿐인 C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③ ㉠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목된 사람이 B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A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이다. ㉡는 제3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b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므로 A의 법적 책임도 마찬가지로 인정할 것이다.
- ④ ㉠은 A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B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이다. ㉡ 역시 B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이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은 인터넷 ID가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므로 인터넷 ID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적 경로]** ㉢가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가장 강하게 묻는 입장임을 지문에서 파악했다면 판단이 더욱 수월했을 것이다. ㉠ 혹은 ㉡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데 ㉢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⑤ C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만 의견을 달리한다.

㉠ 대법원	㉡ 다수 의견	㉢ 소수 의견
A의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았고, 지목된 사람이 A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없으므로, C의 법적 책임 ×	지목된 사람이 A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없으므로, C의 법적 책임 ×	a를 거론한 것은 사실상 실명을 거론한 것과 같으므로, C의 법적 책임 ○

### 정답 확인

1 ④ 2 ⑤ 3 ③ 4 ② 5 ① 6 ②

### 지문 평가

정보와 관점이 나열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보 처리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뚜렷한 기준과 명료한 흐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방향으로 정보들을 수용하고 정리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계적으로 각 관점들을 구분하면서, 필요한 대목에서만 함축되어 있는 바를 잘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글의 구체적인 초점을 찾지 못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 (가) 인문 - 사학 - 개화 논의

척사파, 개화, 임오군란, 고종, 『한성순보』, 개화당의 한 인사, 갑신정변, 유길준, 『서유견문』, 『대한매일신보』, 을사늑약,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 박은식

#### (나) 인문 - 사학 - 과학 담론

아편 전쟁, 청일 전쟁, 과학 정신, 연푸, 천두슈, 장준하, 인생관

### 가 문단1 개화의 흐름

1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 맥락상 '개항'은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수반하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척사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2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의 앞 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주목**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다만 앞선 문장에서는 '개항 이후'의 흐름을 강조하여 설명했으므로, 개항을 기점으로 개화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	개항 이후의 '개화' 개념
통치자의 통치 행위 ⇒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	-

**맥락 읽기** 일반적으로는 글의 첫 문단에서 초점이 명시적으로 주어지지만, 이렇게 함축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명확한 초점 없이 화두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해 두자. 문단을 통해 (가)에서는 조선에서 개항 이전과 이후로 개화 개념이 어떻게 변해 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임을 알 수 있다.

### 가 문단2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

1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 개항 이후 달라진 개화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통치 행위'로서의 의미가 아닌[문단1-2], 개항이 수반하는 서양 문명[문단1-1]의 수용을 뜻하는 개념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	개항 이후의 '개화' 개념
통치자의 통치 행위 ⇒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	서양 문명의 수용

2 임오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反)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 『한성순보』에 제시된 개화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특히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목표로 삼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문단2-1], 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는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따라서 『한성순보』는 서양 문명 수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화 개념을 정리하였다. 앞서 설명한 개항 이후의 개화 개념[문단2-1]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어졌으므로, 이 설명에 주목해서 정리해 두자.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

▶ 여기서 '수용 가능한'이라는 표현을 통해 서양 문명의 수용 범위를 한정 한 것은, 당시의 반서양 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양 문명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거부감을 최대한 희석시키려 한 것이다.

### 가 문단3 개화 개념의 변화

1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맥락 읽기** 이번에는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앞선 시기의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과 달리 개화당의 한 인사는 서양의 기술과 제도가 아닌, 통치 방식의 수용에 주목하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서의 변화

2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 ▶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여전히 통치자로서 왕의 역할을 긍정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래서 왕의 역할을 배제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 ▶ 개화당의 한 인사가 왕의 역할을 여전히 긍정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왕의 역할을 배제하는 통치 방식의 변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반역을 저지르는 행위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개화 실행 주체에서 왕의 역할을 배제시킨 갑신정변을 계기로, 개화에 대하여 '개화=반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다.

3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 내려고 했다.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 ▶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실행 주체로서 국가 구성원 모두의 참여 → 물론 왕의 역할을 부정하지도 않았다.]]를 전제로 하는 개화 개념을 제시했다. 이 또한 개화당의 한 인사와 마찬가지로 개화를 통치 방식에 치중하여 이해한 것에 해당한다.

주목 지금까지 이어진 개화 개념의 변천사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을 각각 구분하되, 개화 개념들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	『대한매일신보』의 '개화' 개념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서의 변화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는 근대 국가 주권 정립

#### 가 문단4 문명에 대한 논의

1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 ▶ 이러한 개화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을사늑약' 이전까지만 이루어졌다. 그 이후로는 '문명'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 ▶ 문명 개념과 관련하여 '대한 자강회'는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한 면에서 이들은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음을 지적받았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

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 주목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과 달리, '박은식'은 문명을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하여 이해함으로써 문명 논의에 민족 주체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과학'의 측면에서는 서양 과학과 기술을 수용하되, '철학'의 측면에서는 우리 민족의 철학 전통 → 유학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과학	철학
문명의 물질적 측면 ⇨ 서양으로부터 수용	문명의 정신적 측면 ⇨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 ∴ 민족 주체성 반영

참고 여기서 '주체 인식'에 대한 설명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양면하게 장악할 수가 없다. 주어진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다. 박은식과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의 견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만 분명히 이해해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설명 정도만 챙기고 가자.

- ▶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이미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한 일본의 지도를 받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었다.
- ▶ 반면에 박은식은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학적·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근대 주체를 제시했다. 이러한 주체 인식은 과학과 구분되는 철학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 나 문단1 중국의 서양 문명 수용에 대한 논의

1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 전쟁 이후였다.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 맥락 읽기 통합 지문에서는 (나)를 읽으면서 (가)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끌고 와야 한다. (가)에서는 개항 전후 조선의 개화 개념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면 [→ 서양 문명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나)에서는 전쟁 이후 중국의 서양 문명의 수용에 대한 논의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 주목 정리하면, 중국은 서양의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더 나아가 서양의 '과학 정신'까지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박은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에서도 서양의 것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셈이다. 이는 박은식이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 철학의 경우 민족 주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 것(가) 문단4-3)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 나 문단2 연푸의 견해

연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

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 먼저 '옌푸'는 '과학적 사유 능력'을 강조하며, 자국의 전통 학문을 배격하고 서양의 과학 정신을 이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락 읽기** 그의 입장이 '천두슈'에게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두 견해는 비슷한 맥락으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비슷한 견해가 주어지더라도 둘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는 의식해야 한다. 완전히 동일한 두 견해를 하나의 지문에서 소개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옌푸	천두슈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과학[→ 과학 정신을 습득해야 함]	-

### 나 문단3 천두슈의 견해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空想)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 예상한 대로 천두슈의 주장은 옌푸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닌 민주 정치의 실현을 위해 과학 정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점만 챙기자.

옌푸	천두슈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과학[→ 과학 정신]을 습득해야 함	민주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신문화가 필요함

### 나 문단4 장진마이의 견해

1 한편,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진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주목** '장진마이'의 견해는 앞선 두 견해[→ 옌푸, 천두슈]와 크게 구분된다. 제1차 세계 대전에 대해 천두슈는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선을 그음으로써 여전히 서양 근대 문명을 전면적으로 긍정했지만[문단3], 반대로 장진마이는 제1차 세계 대전을 근거로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2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 이에 장진마이는 과학과 인생관[→ 맥락상 행위 주체의 책임을 다루는 사상적 영역]을 구분했다. 인생관의 문제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다면 제1차 세계 대전과 같은 역작용이 나타나게 된다고 본 것이다.

▶ 따라서 장진마이는 전통 학문과 전통문화를 배격한 옌푸, 천두슈와 달리, 인생관의 문제에는 '중국 전통 가치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서양 문명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과학의 영역에서는 과학적 방법의 유효성을 긍정했기 때문이다. 인생관의 영역에는 과학적 방법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을 뿐이다[→ 서양의 과학과 기술 수용에는 동의하되, 과학 정신이 인생관의 영역에도 이식되는 것에는 반대한 것이다.]

옌푸	천두슈	장진마이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과학[→ 과학 정신]을 습득해야 함	민주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신문화가 필요함	인생관의 영역에는 과학이 개입하지 않아야 함[→ 중국 전통 가치관 수호]
인생관의 영역에도 과학이 개입해야 함		

**주목** 장진마이의 주장이 박은식의 주장과 흡사하다고 느껴졌다면 올바르게 읽은 것이다. 박은식이 과학과 철학을 구분했듯이[(가) 문단4-3], 장진마이도 과학과 인생관을 구분함으로써 중국 전통 가치관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과학	인생관
과학적 방법[→ 과학 정신]	중국 전통 가치관

### 어휘 다지기

- **개물성무**: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이룸.
- **화민성속**: 백성을 교화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만들.
- **자강**: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음.
- **인민**: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대체로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를 이른다.
- **성문화**: 글이나 문서로 나타남. 또는 글이나 문서로 나타냄.
- **배후**: 어떤 일의 드러나지 않은 이면.
- **역작용**: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영향을 주는 작용.
- **목도**: 눈으로 직접 봄.
- **과학만능주의**: 과학에 의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

# 1

## 세부 정보 파악

정답 ④

선택률	화작	① 11%	② 5%	③ 7%	④ 65%	⑤ 12%
	언매	① 7%	② 3%	③ 3%	④ 79%	⑤ 8%

###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로 설계) 개별 선지의 참조 지점이 명확하게 주어진 문제이다. 이렇게 참조 지점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지문의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따져야 할 확률이 높다.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가) 혹은 (나)의 참조 지점으로 되돌아가 적극적으로 선지와와 일치 여부를 점검해 봐야 한다.

### 정답 설명

④ (나) :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판단 경로

- 1) '옌푸'는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다고 보았다(나) 문단2].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아야만 정치적 변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 2) 즉 이는 정치적 변혁을 위해 과학 정신의 이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지,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① (가) :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 판단 경로

- 1)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척사파'에 해당한다(가) 문단1-1].
- 2) 이러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② (가) :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다.

#### 판단 경로

- 1)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박은식'의 견해에 해당한다(가) 문단4-3].
- 2) 이러한 박은식의 견해는 을사늑약 이후의 문명에 대한 논의에서 제기되었다(가) 문단4-1].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③ (나) :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 판단 경로

- 1) 중국에서는 청일 전쟁의 패배를 계기로 서양의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겼다(나) 문단1-1].
- 2)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에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나) 문단1-2].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⑤ (나) :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 판단 경로

- 1) '장권마이'는 '옌푸', '천두슈'와 달리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인생관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통 가치관의 역할에

주목하였다(나) 문단4].

2)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2

## 특정 개념 파악

정답 ⑤

선택률	화작	① 6%	② 17%	③ 13%	④ 9%	⑤ 55%
	언매	① 4%	② 13%	③ 8%	④ 5%	⑤ 70%

###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답 설명

⑤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 판단 경로

- 1) 갑신정변(→ 1884년) 이후에 발간된 「대한매일신보」의 개화 개념은 국가의 주권과 결부된다(가) 문단3-2, 3].
- 2) 임오군란(→ 1882년) 이후 발간된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다(가) 문단2-2]. 즉 국가 주권과 결부된 개화 개념은 「한성순보」에서 이미 제기되었다.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	「대한매일신보」의 '개화' 개념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서의 변화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는 근대 국가 주권 정립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①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 있었다.

#### 판단 경로

- 1) 개화 개념은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가) 문단 1-2].
- 2)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②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 판단 경로

- 1)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에는 서양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되,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가) 문단2-2].
- 2) 즉 모든 서양 기술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것만 선별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최적 경로) 해당 선지를 판단할 때 '선별적 수용'이 지문의 설명과 거리가 있다고 느꼈을 수 있다. 이는 (가) 문단2 전체의 흐름을 고려한 일정 수준 이상의 추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성순보」가 당시의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서양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

되 선별적 수용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서양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가) 문단2-2].

③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하였다.

**판단 경로**

- 1)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에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가) 문단2-2].
- 2) 또한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에서도 개화 실행 주체는 '왕'으로 설정되어 있다(가) 문단3-2].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④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판단 경로**

- 1)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고, 그로 인해 개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다(가) 문단3-2, 3].
- 2)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3 세부 정보에 근거한 추론 정답 ③**

선택률	화작	① 9%	② 7%	③ 67%	④ 8%	⑤ 9%
	언매	① 7%	② 4%	③ 77%	④ 6%	⑤ 6%

(나)의 '천두슈'와 '장권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로 설계) '천두슈'와 '장권마이'의 견해를 구분하면서 읽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천두슈는 전면적인 과학 정신의 이식을 긍정하면서 그에 따라 전통문화를 배격했지만(나) 문단3], 장권마이는 인생관의 문제에는 여전히 중국 전통 가치관의 역할이 유효하다고 보았다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나) 문단4-2].

연무	천두슈	장권마이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과학[→ 과학 정신]을 습득해야 함	민주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신문화가 필요함	인생관의 영역에는 과학이 개입하지 않아야 함[→ 중국 전통 가치관 수호]
	인생관의 영역에도 과학이 개입해야 함	

**정답 설명**

③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판단 경로**

- 1) '천두슈'는 과학적 방법을 긍정하고, 이에 근거한 신문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차 세계 대전의 비극도 과학을 이용해 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은 아니라고 보았다(나) 문단3].
- 2) 즉 선지의 진술에 천두슈는 동의할 것이다.
- 3) 이와 달리 '장권마이'는 제1차 세계 대전을 근거로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하였다(나) 문단4-1].

4)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권마이가 과학적 방법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사상적 위기가 문제이므로 과학과 인생관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을 뿐, 과학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과학적 방법이 유효하다고 보았다(나) 문단4-2].

- 5) 즉 선지의 진술에 장권마이도 동의할 것이다.
- 6)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오답 설명**

① 전통 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판단 경로**

- 1) '천두슈'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신문화를 이루려면 전통 문화를 철저히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문단3]. 즉 전통 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2) 즉 선지의 진술에 천두슈는 동의할 것이다.
- 3) 이와 달리 '장권마이'는 인생관과 과학을 별개로 파악했다. 즉 인생관의 영역에서는 중국 전통 가치관[→ 전통 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다(나) 문단4-2].
- 4) 이는 과학의 영역에서는 과학 정신이, 인생관의 영역에서는 전통 사상이 쓰임으로써 이 둘이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에 해당한다.

과학	인생관
과학적 방법[→ 과학 정신]	중국 전통 가치관

- 5) 즉 선지의 진술에 장권마이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6)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②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판단 경로**

- 1) '천두슈'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므로,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문단3]. 이는 천두슈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당시의 사회 체질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즉 선지의 진술에 천두슈는 동의할 것이다.
- 3) 반면에 '장권마이'는 전통 사상의 폐단을 지적한 바가 없다. 오히려 그는 과학과 인생관을 구분하여 인생관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전통 사상이 유효하다고 봄으로써, 전통 사상의 수호를 내세웠다(나) 문단4-2].
- 4) 즉 선지의 진술에 장권마이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5)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판단 경로**

- 1) '천두슈'는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고 보았다(나) 문단3]. 서양의 과학이나 기술 수용을 넘어서 사상이나 철학의 측면에서도 과학의 방법에 기반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 2) 즉 선지의 진술에 천두슈는 동의할 것이다.
- 3) 이와 달리 '장권마이'는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나) 문단4-2].
- 4) 즉 선지의 진술에 장권마이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5)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⑤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판단 경로**

- 1) 중국에서는 청일 전쟁의 패배를 계기로 서양의 기술 수용만으로는 온전한 근대화를 이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발생했다.
- 2) 이는 곧 기술 수용을 넘어 기술 배후의 '과학 정신'까지도 이식할 필요가 있다는, 즉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했기 때문에 아편 전쟁에 이어 청일 전쟁도 패배→ 국가의 위기했다고 본 것이다(나) 문단1].
- 3) '천두슈'도 그에 동의하여 과학 정신을 토대로 한 신문화 운동을 주장했다(나) 문단3].
- 4) 즉 선지의 진술에 천두슈는 동의할 것이다.
- 5) 이와 달리 '장권마이'는 서양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에 주목함으로써,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나) 문단4-2].
- 6) 즉 선지의 진술에 장권마이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7)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4**

**관점 비교**

정답 ②

선택률	화작	① 7%	② 29%	③ 33%	④ 13%	⑤ 18%
	연매	① 5%	② 38%	③ 30%	④ 10%	⑤ 17%

①(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과 ②(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로 설계) ㉠은 '박은식'의 견해에 해당하고(가) 문단4-3], ㉡은 '천두슈'의 견해에 해당한다(나) 문단3].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견해를 각각 살펴봐야 하는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두 견해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박은식	㉡ 천두슈
과학과 철학→ 유학의 혁신과 재구성성을 구분해야 민족 주체성을 반영한 근대 국가 건설이 가능함	과학 정신을 사회에 전면적으로 이식함으로써 민주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음

**정답 설명**

- ② ㉠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판단 경로**

- 1)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고 인식한 것은 박은식이 아닌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이다(가) 문단4-2].
- 2) 반면에 '박은식'은 과학과 철학을 구분함으로써 자국 철학 전통 [→ 유학]의 정립을 통해,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새로운 근대 주체를 제시했다(가) 문단4-3].
- 3) 즉 ㉠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입장이 맞다.
- 4) '천두슈'는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했다(나) 문단3].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5) 즉 ㉡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 맞다.

6)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경로 이탈) 두 구절로 구성된 선지를 판단할 때는 두 구절 각각의 참 거짓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바로 두 구절의 전체 구조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가 아닌 '㉡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가 전체 구조임을 파악했어야 한다. 다소 지사한 함정이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자.

해당 선지는 다음 두 구절이 모두 참일 때 적절하다.

- 1) ㉠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2) ㉡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답 설명**

- ① ㉠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판단 경로**

- 1) '박은식'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 과학]과 정신적 측면[→ 철학]을 구분하고,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가) 문단4-3].
- 2) 그러한 의미에서 박은식이 제시한 근대 주체는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띤다.
- 3) 즉 ㉠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동의하는 입장이 맞다.
- 4) '천두슈'는 과학 및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나) 문단3].
- 5) 즉 ㉡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 아니다.
- 6)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③ ㉠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은 과학의 방법에 영향 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판단 경로**

- 1) '박은식'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가) 문단4-3].
- 2) 즉 ㉠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부인하는 입장이 아니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4) 참고로 '천두슈'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했으므로(나) 문단3], ㉡은 과학의 방법에 영향 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경로 이탈) 정답 설명에서도 강조했지만, 두 구절로 구성된 선지를 판단할 때는 두 구절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여 각각의 참 거짓 여부를 따져야 한다. 여기서는 선지의 구조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해당 선지는 다음 두 구절이 모두 참일 때 적절하다.

- 1) ㉠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 2) ㉡은 과학의 방법에 영향 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 ④ ㉠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판단 경로**

- 1)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 일본]를 추종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은 결과로 민족 주체성을 간과한 것에 해당한다[(가) 문단4-2].
- 2) 이와 달리 '박은식'은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과학적·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근대 주체를 제시하였다[(가) 문단4-3].
- 3) 즉 ㉠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이 맞다.
- 4) '천두슈'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나) 문단3].
- 5) 즉 ㉡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 아니다.
- 6)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⑤ ㉠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에, ㉡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판단 경로**

- 1) '박은식'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과 정신적 측면인 '철학'을 구분하였다[(가) 문단4-3].
- 2) 즉 ㉠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 맞다.
- 3) '천두슈'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나) 문단3],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라고 보았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 4) 즉 ㉡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 아니다[→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 5)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5** **고난도**  
**지문의 개념을 <보기> 사례에 적용**

정답 ①

선택률	화작	① 20%	② 26%	③ 16%	④ 26%	⑤ 12%
	언매	① 28%	② 23%	③ 15%	④ 24%	⑤ 10%

(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경로 설계) (가), (나)의 관점들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야 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선지의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지문의 관점들에 비추어 <보기>의 상황을 풀이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선지의 그럴듯한 진술에 속아 넘어가기 쉽기 때문이다.

**보기**

1 A 마을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며 이웃 마을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주목 (가)의 개항 이후의 '개항', (나)의 아편 전쟁 이후 서양 기술의 수용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특히 (나)에서는 청일 전쟁 이후 서양 기술을 넘어 과학

정신까지 이식하려는 과정에서 '전통문화'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인 견해들이 제시되었으므로, 이에 주목하면서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

2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했다.

➡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 자체에는 A 마을 사람들도 동의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러한 확신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진행하였다.

➡ 이는 고종이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발간한 『한성순보』와 비슷한 면모가 있다[(가) 문단2-2]. 중국도 아편 전쟁 이후 서양의 기술 수용에 적극적이었으므로[(나) 문단1-1], (나)의 사상가들도 해당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홍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장친마이'조차도 과학의 영역에 있어서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나) 문단4-2].

3 이후 마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경제적 이권을 두고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며 갈등하게 되었다. 격화된 경쟁에서 A 마을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만을 우선시했고, 과거에 중시되었던 협력과 나눔의 인생관은 낡은 관념이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는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 이렇게 발생한 경쟁과 갈등을 '연무'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과학 정신'의 이식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나) 문단2].

➡ 그 연장선에서 '연무', '천두슈'는 모두 A 마을이 협력과 나눔의 인생관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것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전통 학문이나 전통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전면적인 과학 정신의 이식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나) 문단2, 3].

주목 이와 달리 '장친마이'는 과학과 인생관의 영역을 구분하고, 인생관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전통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장친마이만이 이러한 A 마을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나) 문단4]. 비슷한 맥락에서 '박은식' 역시 철학의 부재를 지적하며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가) 문단4-3].

**정답 설명**

- ①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겠군.

**판단 경로**

1)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가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에 있는 것은 맞다[(가) 문단2-2].

2) 그러나 <보기>에서 정부가 마을의 미래상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것은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다. A 마을 사람들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을 뿐이다 [<보기>-2].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9 (경로 미탐) 'X는 Y와 부합하겠군.'으로 구성된 선지는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넘어가기 쉽다. 이는 함정에 빠지기도 쉽다는 뜻이므로, 더욱 X와 Y가 각각 참인지, 이 둘이 실제로 부합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둘이 부합한다는 것은 X와 Y가 서로 꼭 들어맞는다는 뜻이므로, 이 둘이 사실상 같은 맥락에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보기>의 A 마을 사람

들은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애초에 없었으므로, (가)의 「한성순보」의 사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오답 설명**

②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개화의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와 다르겠군.

**판단 경로**

- 1)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가) 문단3-1).
- 2) 반면에 <보기>에서 정부는 통치 방식의 변화가 아닌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기)-1).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③ (가)에서 박은식은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므로, <보기>에서 젊은이들의 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보겠군.

**판단 경로**

- 1) '박은식'은 문명에 대한 논의에서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가) 문단4-3).

과학	철학
문명의 물질적 측면 ⇒ 서양으로부터 수용	문명의 정신적 측면 ⇒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 ∴ 민족 주체성 반영

- 2) 즉 박은식은 <보기>에서 젊은이들이 자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에 대해,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영역이 부재하여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것이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④ (나)에서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과 정신적 자질을 강조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겠군.

**판단 경로**

- 1)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과 정신적 자질을 강조했다(나) 문단2).
- 2) 즉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의 수용을 넘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 과학적 사유 능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나) 문단1-2, 문단2).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경로 이탈)** 헛갈릴 여지가 약간 있다.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기>에서 A 마을 역시 전통문화가 아닌 과학적 사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소의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해당 선지를 지지하는 구체적인 진술이 지문에 존재하므로 해당 선지를 적절하다고 처리해야 한다. 둘 이상의 선지가 모두 정답인 것 같을 때에는 해당 선지들을 다시 꼼꼼히 판단하되, 구체적인 근거가 지문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 출제자들은 헛갈리는 선지를 만들 때 명시적인 근거를 두어 문제 제기를 방어하기 때문이다.

⑤ (나)에서 장권마이는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겠군.

**판단 경로**

- 1) '장권마이'는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나) 문단4-2). 이는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즉 장권마이는 협력과 나눔의 인생관이 낡은 관념이 된 <보기>의 문제에 대해, 이를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과학적 방법은 과학의 영역에서만 유효하고, 인생관의 영역에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과학	인생관
과학적 방법(→ 과학 정신)	중국 전통 가치관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6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 ②

선택물	화작	① 2%	② 81%	③ 2%	④ 3%	⑤ 12%
언매	① 1%	② 91%	③ 1%	④ 2%	⑤ 5%	

㉠(그칠)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 설명**

② 우리 학교는 이번에 16강에 그쳤다.

**판단 경로**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의 '그칠'은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어떤 상태에 머무른다.'라는 뜻이다. 이는 선지의 '그쳤다'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다.

**오답 설명**

① 다행히 비는 그사이에 그쳐 있었다.

**판단 경로**

선지의 '그쳐'는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라는 뜻이다.

③ 아이 울음이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판단 경로**

선지의 '그치지'는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라는 뜻이다.

④ 그는 만류에도 말을 그치지 않았다.

**판단 경로**

선지의 '그치지'는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라는 뜻이다.

⑤ 저 사람들은 불평이 그칠 날이 없다.

**판단 경로**

선지의 '그칠'은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라는 뜻이다.

## 01. 출제 경향

### ▶ 출제 작품

세부 영역	문항 수	작품	EBS 연계
고전소설	4	작자 미상, 「정을선전」	수능특강 152쪽 (지문 전체가 수능특강 수록 부분과 겹치지만, 판본이 달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음.)
현대시 + 수필	6	장석남, 「배를 밀며」	수능완성 250쪽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비연계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비연계
현대소설	4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비연계
고전시가	3	작자 미상, 「갑민가」	수능완성 168쪽 (지문 전체가 수능완성 수록 부분과 겹침.)
		작자 미상, 사설시조	비연계

### ▶ 총평

- 최근의 출제 경향과는 다른 기초를 보여 준 시험이었다. 지문의 세부 논리를 분석적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하거나 내신 문항처럼 설계된 문제가 많았던 최근의 출제 기초에서 벗어나, 문학답게 작품에 대한 포괄적인 감상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문항들이 많았다. 사용된 어휘의 특징 등을 볼 때도, 교사 중심 출제에서 교수 중심 출제로 다시 변화가 있지 않았나 한다.
- 전체적인 난도는 낮았다. 고전소설 세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답을 찾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의미나 주제를 선명하게 규정할 수 없는 낯선 작품들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풀이에 집중한 수험생들은 무난하게 해결을 했을 테지만, 작품을 이해하려 한 수험생들은 당황하여 시간 낭비를 했을 수도 있다.
- 구성과 배열이 작년 수능과 동일하였다. ‘고전소설 4문항 / 현대시-수필 갈래 복합 6문항 / 현대소설 4문항 / 고전시가 3문항’ 세트로, 고전수필이 아니라 현대수필인 점만 차별성이 있었다.

### ▶ 연계 평가

- 출제된 7작품 중 3작품이 연계여서, EBS 연계율은 50%에 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연계된 고전소설과 고전시가는 지문이 모두 EBS 교재와 겹쳤고, 고전소설의 경우 연계 학습을 하지 않은 경우 서사를 이해하기 어렵도록 설계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연계 학습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시험이었다.

- EBS 연계 작품 중 고전소설은 수능특강에서,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수능완성에서 출제되었다.
- 산문 갈래의 경우 예년처럼 고전소설은 연계로, 현대소설은 비연계로 출제되었다.
- 운문 갈래의 경우에는 각각 연계 1작품과 비연계 1작품을 짝 지어 출제하는 기존 방식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현대시의 경우 (가)에는 1세대 시인의 작품을, (나)에는 2, 3세대 시인의 작품을 배치하던 기존의 구성 원리에서 벗어난 세트였다. 이번 현대시-수필 갈래 복합 세트의 경우, (가)는 1965년생 시인의, (나)는 1964년생 시인의, (다)는 1963년생 문학 평론가의 작품이다. 예년에 비한다면 모두 최근 작가들의 작품들이다.
- 올해로 6년째 극이 아닌 수필이 출제되고 있다. 이는 극 갈래를 강화하고 있는 교과서의 변화 방향과는 다른 출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 02. 작품 분석

### [18~21] (고전소설) 작자 미상, 「정을선전」

주목해야 할 작품 (2025학년도 대수능 대비) : 작자 미상, 「정을선전」 중요도 AA

- 가장 난도가 높은 세트였다. 국어 전체 오답률 10위 안에 포함된 문학 4문항 중 3문항을 이 세트가 차지했다.
- 지문은 모두 수능특강 수록 부분과 겹쳤다. 그러나 판본이 달라서 세부 내용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사전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지문만으로는 서사 파악이 원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점이 오답률을 높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이감의 경우 올해 두 번에 걸쳐 이 작품을 출제했는데, 두 지문이 모두 이번 수능 지문에서 선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서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감 모의고사를 풀어 본 수험생들의 경우 매우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 18번과 20번 문항은 모두 내용 이해 문제인데, 기존의 내용 이해 문제와는 달리 신유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18번 문항의 경우 해당 지문만으로는 서사 이해가 선명하게 완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서사의 앞뒤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 난도가 높아진다는 점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문학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 되었다. 19번 문항의 경우는 올해 이감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거듭 출제된 문항이었다.
- 18번과 21번 문항에서는 굵은 글씨체 표시를 해 주었는데, 이는 굵은 글씨체 처리에 인식했던 최근의 경향과 반대된다. 그러나 두 문항 모두 선지의 순서가 서사의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시간 절약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21번 문항의 경우, 서사의 전개 순서가 아니라 <보기>의 전개 순서대로 선지가 배열됨으로써 지문의 앞부분에 제시된 내용이 후반 선지에 배치되는 등의 결과를 낳아서, 지문 확인만 하면 되는 문항인데도 확인할 부분을 쉽게 찾지 못해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사를 장악하지 못한 채 문제 풀이에 급급했던 수험생들에게는 까다로운 세트였을 것이다.

정답 설명 : ②

- 1) 승상이 ㉠[→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에서 언급한 ‘이미 아는 바’는 그가 전장에서 집안 소식이 담긴 편지를 받아 읽고 그 편지를 전한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은 후 집안에 일어난 변고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2) 이에 승상은 집으로 돌아와 왕비와 옥졸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후 금연을 국문하여 그의 실토를 받아 낸 끝에 정렬부인이 총렬부인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승상은 ‘정렬부인이 이리이러한 변을 일으켰’다고 황상께 ‘상소’를 올려 고하였다. 따라서 ‘상소’에는 승상이 집에 돌아와 비로소 알게 된 사건의 진상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것이 ㉠의 ‘이미 아는 바’와 같다고 할 수 없다.

오답 설명

- ① 승상이 집안 소식이 담긴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전해 준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은 후 곧장 집으로 가 총렬부인을 구했음을 고려할 때, 승상이 알게 된 ‘연고’에는 총렬부인이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참고로 호첩은 총렬부인을 위해 죽은 시비 월매의 오라비이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승상은 총렬부인을 구하게 되고 그에게서 자신의 ‘누명’을 벗겨 달라는 말을 듣는다. 따라서 사건의 진상을 모르는 왕비가 ‘사연을 낱낱이’ 일렀음에도 승상은 크게 놀라지 않고 ㉠과 같이 반응한 것이다. 한편 왕비가 나중에 사건의 진상을 알고 나서 ‘악녀[→ 정렬부인]의 꾀에 빠져 총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다며 후회했음을 고려할 때, 왕비가 사건의 진상을 모른 채 승상에게 말한 ‘사연’에는 총렬부인이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게 된 사정이 담겨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승상이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과 왕비가 승상에게 말한 ‘사연’의 내용은 모두 총렬부인이 위기에 빠지게 된 일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말한 것으로,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승상은 왕비가 낱낱이 이른 ‘사연’을 듣고 ‘이미 아는 바’라며 왕비를 안심시킨 후 ㉡을 통해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물었다. 이후 이어지는 금연의 실토를 통해 ‘그놈’은 총렬부인의 처소에 드나든 남자를 가리키며, 실은 남북을 입은 금연임을 알 수 있다. 정렬부인에게 속아 사건의 진상을 모르고 있던 왕비와는 달리 승상은 왕비가 전한 ‘사연’을 표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분명 음모가 있었을 것이라 여겨 그 내막을 알아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상이 왕비에게 ㉡이라 물은 것은,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요소라 생각했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 ④ ‘그놈’의 행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승상의 물음인 ㉡에 대해, 왕비는 ‘사촌 오라비[→ 복록]가 이르기로 알았노라.’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왕비의 사촌 오라비인 복록임을 알 수 있다.
- ⑤ ㉡이 제시된 이후 복록의 상황은, ‘[복록이]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라는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 죄를 알고’서 ‘죽었’다는 것을 통해, 복록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심리적 중압감을 느껴 자결했음을 알 수 있다.



## 고난도 문항 해설 21번

### 정답 설명 : ④

- 1) 왕비가 총렬부인의 행방에 대해 문초했음에도 '왕비의 시비 월매'는 '중시 토설치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매를 많이 맞'았음에도 '어서 바빠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라는 말로 죽음을 불사하는 태도를 보이며 끝까지 총렬부인의 행방을 밝히지 않았다.
- 2) 월매가 다른 이가 아닌 '왕비'의 시비라는 점에서, 그가 자신의 주인을 거역하면서까지 총렬부인을 숨겨 보호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인 왕비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한 것이지 진실을 밝힌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월매의 모습에서, <보기>의 설명대로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시비가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능동적인 행위자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설명

- ①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이라고 자신을 밝힌 부분에서는 그의 직책이 국가의 '대원수' 임이 드러나고,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옵고 필마로 올라와' 보았다는 부분에서는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에 소홀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나라와 집안의 일을 아우르며 가정 안팎의 사건에 남주인공인 정을선이 두루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승상이 총렬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비할 데 없이 '참혹한 형상'으로 '슬픔에 매우 아위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이 극대화된 형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승상이 총렬부인이 숨어 있는 '구덩이를 찾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부인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모습은 인물의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이라 할 수 있다.
- ③ 왕비는 사건의 진상을 알고 나서 '양천통곡하'며 '내 밝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총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왕비는 자책의 태도[→ '내 밝지 못하여']를 보이면서도 총렬부인의 수난이 정렬부인이라는 악인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인식[→ '악녀의 꾀에 빠져']을 드러내는데, 이는 이 작품에서 일부다처제에서 비롯된 가장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 된다는 <보기>의 내용과 결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⑤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지는 장면에서는, 승상의 부인이라는 집안의 상층 인물이 위엄을 실추시키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 그 인물이 희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2~27] (현대사·수필) (가) 장석남, 「배를 밀며」 / (나)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 (다)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 주목해야 할 작품 (2025학년도 대수능 대비) : 장석남, 「배를 밀며」 중요도 B

- (가)는 EBS 연계 작품이지만, 사실 모의고사와의 중첩을 피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선택된 작품이라 판단된다.
- (나)는 출제 작품을 선택할 때 교육적 의의와 함께 맥락 파악을 중시하는 평가원의 선택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작품으로서, 출제 작품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 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맥락 없이 심적 상태에 대한 감각적 표현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매우 시적인 작품이라, 수험생들에게는 낯선 느낌을 강하게 주었을 것이다.
- (다) 역시 비문학과 유사한 독해력을 요구하던 최근의 수필 경향에서 벗어나 매우 문학적인 작품을 출제하였다.
- 낯선 작품들을 제시하다 보니 <보기> 문항이 두 개인데 둘 다 개별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 (나)를 묻는 25번 문항의 경우 <보기>와 같은 안내가 없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정답이 너무 쉬워 맥이 좀 빠지는 문항이 되었다. 대신 (다)를 다루는 27번 문항의 경우는 수필 작품의 주제를 짚는 의미 있는 정답이 나왔고, 25번 문항에 비해 난이도도 적절하게 확보되었다.

### [28~31] (현대소설)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 낯선 작품이었으나 가장 쉬운 세트였다. 이 작품은 진실이 부재하는 현실의 비극성을 우화적인 방식으로 환기한 소설이라는 정도의 평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작품의 주제를 건드리지 않고 문제 제기에만 한정해서도 출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세트이다.
- 서사의 상징성 때문에, 수험생들은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과 유사한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 28번 문항은 최근 현대소설 갈래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서술 방식 문제였는데, 최근 들어 그 유형에서 가장 쉽게 출제된 문항이라 할 수 있다.
- 31번 문항의 경우, <보기>는 지문 내용 설명에 그쳤고 정답 선지는 선지 자체가 모순된 진술을 보여 줌으로써 매우 쉬운 문항이 되었다. 상징적인 소재인 ‘배꼽’의 의미를 추론하게 한다든가 하는 출제 방향을 배제한 설계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판단된다.

### [32~34] (고전시가) (가) 작자 미상, 「갑민가」

#### (나) 작자 미상, 사설시조

#### 주목해야 할 작품 (2025학년도 대수능 대비): 작자 미상, 「갑민가」 중요도 A

- 작년 수능과 동일하게 고전시가 갈래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가)의 경우 EBS 연계 작품으로서, 6월 모의평가에서 연계 가사 「우부가」가 나온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작품 선택이었다. 은일을 주제로 한 양반 가사 위주의 선택에서 벗어난 작품이다.
- (가)는 지문 전체가 수능완성의 제시부와 일치하며, 교재에 비해 현대어로 더 풀어 주거나 어휘 풀이를 적게 준 정도의 차이만 있다. 이감은 지난 2021학년도에 올해 수능과 동일한 부분을 지문으로 활용하여 대화 형식이라는 동일한 테마를 <보기> 내용으로 출제한 적이 있으며, 이는 올해 간쓸개를 통해 제시되었다.
- (가)는 가사 작품이고 지문의 길이도 긴 편인데, 내용을 확인하는 단독 문항을 출제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33번 문항 대신 (가)의 내용 이해 문항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었으면 좀 더 충실한 세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전체 난도를 쉽게 가져가려고 한 의도의 결과인지 모르겠다.
- (나)는 낯선 사설시조로서, 작품 내용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점을 오히려 <보기> 내용으로 제시하여 의미 있는 문항을 만들어 내었다. 낯선 설계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보기> 문항인 34번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지, 예상보다는 오답률이 높게 나온 문항이다. 해당 지문에 대한 해설은 『이감으로 기출 문학』 ‘지문 분석’에서 상세히 보여 주도록 하겠다.

### 경답 확인

1 ㉓ 2 ㉓ 3 ㉓

### 〈보기〉 감상의 내비게이션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 준다.

▶ 입장이 다른 발화자, 대화체, 극의 한 장면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의 가사 또는 사설시조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 내용 →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줌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	•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됨 → 재미 발생 • 불완전한 표현의 등장 →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하는 작품의 성격을 보여 줌

### (가) 작자 미상, 「갑민가」

#### 감상의 경로 안내

「갑민가」는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화자인 양반의 말을 통해 '갑민'의 현재 상황을 보여 준 다음, 두 번째 화자인 '갑민'의 말을 통해 그가 고향을 등지고 유랑을 떠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갑민'이 겪은 참혹한 일을 그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군역을 둘러싼 폐단으로 인해 유랑을 할 수밖에 없는 백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생히 드러내고 있다.

#### 토막1 훈계하는 양반의 말

어저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 하니 군사 도망 네로구나  
군역을 피해 달아남

▶ 차림새와 정황을 통해 상대방(→ '저 사람')의 처지를 짐작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허리 위로 볼작시면 배적삼<sup>●</sup>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현 잠방이<sup>●</sup> 노닥노닥<sup>●</sup>

▶ 다 해져서 옷깃만 남은 윗옷과 누덕누덕 기운 바지를 입은 차림새를 통해 매우 가난한 형편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곱장<sup>●</sup> 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sup>●</sup> 뒤에 간다

▶ 허리 굽은 여자 노인(→ '저 사람'의 모친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음)을 앞장 세우고 다리 저는 사람(→ 아마도 부친이 아닐까 싶음)을 뒤따르게 한 채 여된 가로 애써서 가는 모습을 보고 도망 중이라 짐작한 것이다.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없어지리

약 4킬로미터. 보통 한 시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

▶ 하루 종일 걸어도 겨우 '십 리'를 가는 속도인 것을 보니 '몇 리' 못 가서 옆 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 타관<sup>●</sup> 옮겨 살면

천히 되기 상사<sup>●</sup> 여든 본토<sup>●</sup> 군정(軍丁)<sup>●</sup> 싫다 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 일토(一土)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쏜가

▶ 양반도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살면 천하게 대접받기가 예사인데 평민이 오죽하겠느냐는 말과 함께 어데 간들 군역을 면할 수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박혀

칠팔월에 인삼<sup>●</sup> 캐고 구시월에 돈피<sup>●</sup> 잡아

공채<sup>●</sup> 신역<sup>●</sup> 값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함흥 북청 홍원 장사 돌아들어 잠매<sup>●</sup> 할 때

후한 값에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 전토(家畬田土)<sup>●</sup> 다시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무나

▶ 도망을 하지 말고, 산삼을 캐고 담배를 잡아서 그것으로 세금 등을 모두 낸 후에 남은 것을 상인에게 비싼 값에 몰래 팔아서 다시 재산을 장만하고 풍족하게 지내라는 것이다.

〔참고〕 산삼과 담배 가죽은 공납(=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등에 내는 특산물로서 당시 사적인 매매가 금지되어 있었다.

#### 토막2 대답하는 '갑민'의 말

어와 생원인지 초관<sup>●</sup>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

이 내 또한 갑민(甲民)<sup>●</sup>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 쏜나

▶ 자신이 갑산의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나, 이 고장의 물정을 모르는 소리를 그만하라는 것이다.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 급제 계속하여

금장 옥패<sup>●</sup> 빗기 차고 시종신<sup>●</sup>을 다니다가

높은 관직의 상징물

시기인의 참소<sup>●</sup> 입어 변방으로 쫓겨 와서

국내 변방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 자기 집안의 내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조상이 원래 남쪽 지방의 양반으로서 대궐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참소를 당해 북쪽 변방으로 쫓겨 온 후로 칠팔 대째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증 구실<sup>●</sup> 첫째로다

들어가면 죄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유사 장의 채지<sup>●</sup>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 '죄수', '별감', '풍헌', '감관', '유사', '장'의 지방의 수령을 보좌하던 양반의 자문 기관 등에 속한 직책들이다. 북방으로 쫓겨 오기는 했지만 높은 관직에 있었던 조상을 둔 덕에 대대로 갑산의 여러 직책들을 맡기도 하고 때로는 체면상 사양하기도 하면서 지내 왔다는 것이다.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sup>●</sup>로써

군사 강정<sup>●</sup>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헐어 나니

좌우전후 수다<sup>●</sup> 일가 차차 충군(充軍)<sup>●</sup> 되졌고야

▶ 군역은 평민에게만 부과되는 것인데, 원수의 모해 때문에 자신이 군역을 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니 자신의 수많은 일가친척들에게도 차차 군역이 부과되었다는 것이다.

조상 제사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여 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 자신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몸이라 도망을 하지 못하고, 제사의 의무가 없는 친족들은 다 도망을 쳤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한 몸 신역 삼냥 오 전 돈피 두 장 의법<sup>●</sup>이라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냥

해마다 말아 무니 석송<sup>●</sup>인들 당할쏘냐

▶ 군포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일가붙이에게 대신 물리던 일인 '족징(族徵)' 때문에 군역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 어휘 다지기

- 베적삼 : 베로 지은 여름에 입는 홰저고리.
- 잠방이 :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홰바지.
- 노닥노닥 : 해지고 찢어진 곳을 여기저기 긁거나 덧붙인 모양.
- 곱장 : 꼬부랑.
- 전태발이 : 절름발이.
- 타관 : 자기 고향이 아닌 고장.
- 상사 : 보통 있는 일.
- 본토 : 본디의 고향.
- 군정 : 국가나 관아의 명령으로 병역이나 노역에 종사하는 것.
- 돈피 : 담비 가죽.
- 공채 : 국가에 내는 세금을 미납하여 진 빚.
- 신역 : 나라에서 성인 장정에게 부과하는 군역과 부역.
- 잠매 : 물건을 몰래 사고팔.
- 가사 전토 : 집과 논밭.
- 초관 : 조선 시대의 무관 벼슬.
- 갑민 : 갑산의 백성.
- 금장 옥패 : 금으로 장식한 옥패.
- 시종신 : 임금 곁에서 보필하던 벼슬아치.
- 참소 :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
- 구실 : 관아의 임무.
- 채지 : 관직에 채용한다는 사령서.
- 모해 : 피를 써서 남을 해침.
- 강정 : 무관에 대한 징벌로 군사로 계급을 낮추어 군역을 시키던 일.
- 수다 : 수효가 많음.
- 충군 : 군역의 명부에 편입됨.
- 의법 : 정해진 법.
- 석송 :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

## 현대어 풀이

아아,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 하니 군역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네 상황이로구나  
 허리 위를 볼 것 같으면 삼베 저고리가 다 해져서 옷깃만 남았고  
 허리 아래를 굽어보니 현 흠바지를 누덕누덕 기워 입었구나  
 꼬부랑 할머니가 [무리의] 앞에 가고 다리 저는 사람이 뒤따라간다  
 십 리를 하루에 갈 속도로 걷고 있으니 몇 리 못 가서 엎어지리라  
 자기 본고장에 살던 양반도 다른 고장으로 옮겨 가서 살면  
 천한 대접을 받기가 예사인데, 고향에서 군역을 지는 게 싫다고  
 자네가 도망을 한다 한들, 한 나라 다 똑같은 인심에  
 근본을 숨기고 살려고 한들 어디에 간다고 군역을 면하겠느냐?  
 차라리 너 살던 곳에 형편이 어떠한지 뿌리를 내리고  
 칠팔월에는 산삼을 캐고 구시월에는 담비를 잡아서  
 공채와 신역을 갚은 후에 그 나머지는 두었다가  
 함흥 북청 흥원 장사치들이 돌아다며 몰래 [산삼과 담비 가죽을] 사들일 때에  
 비싼 값에 팔아서, 살기 좋은 넓은 곳에  
 집과 논밭을 다시 사고 살림살이를 장만하여  
 부모와 처자식을 먹여 살리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라  
 어이구 생원인지 초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대 말씀 그만하고 나의 얘기 들어 보소  
 나도 또한 갑산 사람이라, 이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 지금 갑산의 물정을 모르  
 겠는가

우리 조상은 원래 남쪽 지방 양반으로서 진사 급제를 계속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 임금을 곁에서 모시다가  
 시기하는 사람에게 모함을 당해서 [온 집안] 변방으로 쫓겨 와서  
 나라의 변방인 이 [갑산] 땅에서 칠팔 대째 살아왔으니  
 [그래도] 조상 덕에 읍 관아에서 지방 양반으로서 으뜸 임무를 맡았도다  
 대대로 죄수나 별감도 하고 풍헌이나 갑관도 하고  
 유사나 장의 자리가 나면 체면 차려 사양하곤 해 왔는데  
 애달프도다, 내 대에 와서 원수의 모해를 입어서  
 어찌 군역을 맡게 되었단 말인가, 내 한 몸 신세 그렇게 망치고 나니  
 주변의 수많은 일가친척까지 차차 군역을 지게 되었구나  
 조상 재사를 받들어야 하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그런 걱정 없는 여러 친척들은 자취 없이 도망했으니  
 그 여러 친척들의 신역까지 모두 나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한 사람 신역이 삼 냇물 전 또는 담비 가죽 두 장으로 법에 정해져 있으니  
 도망한 열두 명 친척의 것까지 합쳐 보면 사실상 양이라  
 해마다 그 금액을 내야 하니 아무리 부자라도 감당이 되겠는가

## 이해와 감상

수록된 지문 뒤에도 '갑민'의 말이 작품 끝까지 아주 길게 이어져, 「갑민가」의 대화는 사실상 '갑민'의 발언 위주로 전개된다. '생원인지 초관인지'의 목소리는 '갑민'의 목소리에 비해 역할이 미약하여, 그는 대화 상대방으로서 대등한 기능을 한다기보다 '갑민'의 자연 토로를 이끌어 내는 기능을 할 뿐이라고 볼 수 있다.

'갑민'의 말은 족장과 공납의 폐해뿐 아니라 갑산 지역의 폭정을 고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이후 작품의 말미에서 그는 자신이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북청 고을로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북청 부사가 선정을 베풀고 있어 그곳에서는 군역의 부담이 적다고 말한다.

「갑민가는 영·정조 때의 문신인 성대중(成大中)이 함경도 북청 부사로 있을 때 함경도 갑산에 살던 사람이 썼다고 전해지는데, 현실을 고발하는 가사이지만 후반부를 봤을 때 실은 북청 부사 성대중의 선정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 평가되기도 한다.

## (나) 작자 미상,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 감상의 경로 안내

대화로 구성된 사실시조이다. 읽다 보면 시적 상황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보기〉와 해당 문제의 선지에서 그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편이 좋다.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아희들아

앞내\* 고기 뒷내\* 고기를 다 몽땅 잡아내 다래끼\*에 넣어 주거든

네 소 궁둥이에 얹어다가 주렴

▶ 초장과 중장은 화자가 '아희들'에게 건네는 부탁이다.

우리도 서주(西疇)\*에 일이 많아 바빠 가는 길에 가 전할동 말동  
 아희들  
 하여라

▶ 중장은 그에 대한 '아희들'의 대답이다.

### 어휘 다지기

- 녹양방초 :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
- 앞내, 뒷내 : 집이나 마을의 앞, 뒤에 있는 내.
- 다래끼 : 물고기나 작은 물건 등을 넣는 바구니.
- 서주 : 서쪽 밭.

## 현대어 풀이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이 우거진 언덕에서 소 먹이고 있는 아이들아  
 [내가] 앞내와 뒷내에 있는 물고기를 몽땅 잡아내어서 바구니에 넣어 주거든  
 그것을 네 소의 궁둥이 위에 얹어다가 [○○○에게 나 대신] 가져다주렴  
 우리도 서쪽 밭에 일이 많아서 바빠 가는 중이다, 가서 전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 이해와 감상

화자와 '아희들' 사이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대화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화자는 앞내와 뒷내에 있는 물고기들을 몽땅 잡아낼 만큼의 정성과 시간을 들이려 하면서 왜 그것을 가져다주는 일은 '아희들'에게 맡기려 하는 것인지, 또 그 물고기들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어쩌면 이 작품은 일에 대한 연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대화의 구성이나 전개 양상이 비슷한 다음 사실시조를 참고하자.

청천(靑天)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내 말 들어  
 한양 성내에 잠깐 들러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웨쳐 불러 이르기를 월랑흔 겨워  
 갈 제 적막 공구(空闕)에 던져진 듯 홀로 앉아 남 그려 차마 못 살레라 하고 부디 한  
 말만 전하여 주렴  
 우리도 남 보러 바빠 가는 길에 오매 전할동 말동 하여라

- 작자 미상 -

# 1

## 표현상 특징

정답 ③

선택률	화작	① 6%	② 16%	③ 63%	④ 10%	⑤ 5%
	연매	① 4%	② 13%	③ 76%	④ 5%	⑤ 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정답 설명

③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한다.

#### 판단 경로

- 1)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쏜가'에서는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근본을 숨기고 살려고 해도 힘들 것이므로 고향을 떠나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모를쏘냐'에서는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 자신이 이 땅의 일을 알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해마다 맡아 무니 석송인들 당할쏘냐'에서는 과도한 신역을 감당해야 하는 당시의 부조리한 현실로 인한 고통을 부각하고 있다.
- 2) 이처럼 (가)에서는 의문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모두 상대의 행적에 대해 의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① 대구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

#### 판단 경로

- 1) '허리 위로 볼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 허리 아래 굽어보니 현잠방이 노닥노닥'에서 대구 표현을 사용하여 '군사 도망'을 하는 '네 행색'을 묘사하고 있다.
- 2) 이를 통해 도망가는 대상의 초라한 모습과 불쌍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②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 판단 경로

- 1) '본토 군정 싫다 하고 /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 일토 한 인심에 /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쏜가'에서 군정이 싫어 도망하는 상황 [→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고, 도망 후 '근본 숨겨 살려고 해도 어디를 가든 군역을 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2)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악화된 처지를 보여 준다.

#### 판단 경로

- 1)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 구실 첫째로다 /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 유사 장의 체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에서 과거에는 '조상 덕'으로 갑산에서 양반으로서 여러 직책을 맡기도 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 2) 그러나 '원수인의 모해'로 인해 현재는 '군사 강정' [→ 사회적 지위가 강등됨] 되어 '내 한 몸이 혈어 나고 나니 / 일가 차차 충군' [→ 일가 친척들에게도 차차 군역이 부과됨]이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현재의 악화된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

#### 판단 경로

- 1)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 의법이라 /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에 구체적 수치'가 나타나 있다.
- 2) 이 수치는 한 사람에게 부과되어 있는 신역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이 몰아야 할 모든 신역을 화자 혼자 몰아야 하는 양을 나타낸 것으로, 혼자 부담해야 할 신역이 부자인 석송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것임을 부각하고 있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2

## 소재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⑤

선택률	화작	① 7%	② 9%	③ 5%	④ 6%	⑤ 73%
	연매	① 4%	② 5%	③ 2%	④ 3%	⑤ 8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인삼  
㉡ : 고기

### 정답 설명

⑤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 판단 경로

- 1) (가)에서 ㉠을 언급한 화자는 상대 [→ '갑민']에게 '군사 도망'을 하지 말고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박혀 / 칠팔월에 인삼 [→ ㉠] 캐고 구시월에 돈피'를 잡아, 공채와 신역을 갚는 데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은 상대가 도망가지 않고 살던 곳에 머물면서 캐어 생활의 방편으로 삼기를 바라는 대상으로,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 2) (나)에서 ㉡을 언급한 화자는 상대 [→ '아희들']에게 자신이 '고기' [→ ㉡]를 '다래끼에 넣어' 주면 '네 소 궁둥이에 엮어다가' 누군가에게 가져다주라고 요청하고 있다. 즉 ㉡은 상대가 소에 싣고 가서 누군가에게 전해 주기를 바라는 대상으로,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오답 설명

①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해 가려는 땅에서 재배할 약재이다.

#### 판단 경로

- 1) (가)에는 ㉠을 언급한 화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려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2) 다만 ㉠은 ㉠을 언급한 화자가 상대 [→ '갑민']가 도망하지 않고 지금 살던 곳에 뿌리박혀 살면서 캐기를 바라는 대상이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②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이다.

#### 판단 경로

- 1) ㉡을 언급한 화자는 상대 [→ '아희들']에게 ㉡을 누군가에게 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 2) 이때 ㉠은 ㉡을 언급한 화자가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는 대상일 뿐,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인 '아희들'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이 아니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③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희를 목적으로 구하려는 물품이다.

**판단 경로**

- 1) ㉠은 '갑민'이 공채와 신역을 갚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연물이고, ㉡은 ㉠을 언급한 화자가 누군가에게 전해 주고 싶은 자연물이다.
- 2) (가)와 (나)에는 화자의 유희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과 ㉡ 모두 유희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

**판단 경로**

- 1) ㉠은 ㉠을 언급한 화자 입장에서 상대[→ '갑민']가 캐기를 바라는 대상으로, 이를 언급한 화자가 상대의 도움을 받아 획득하려는 대상이 아니다.
- 2) ㉡ 또한 ㉡을 언급한 화자가 상대[→ '아희들']의 도움 없이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상대에게 운반과 전달의 도움만을 요청하고 있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3

#### 〈보기〉 관점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②

선택률	화작	① 6%	② 55%	③ 19%	④ 15%	⑤ 5%
	언매	① 4%	② 75%	③ 9%	④ 9%	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경로 설계)**

- 1) 〈보기〉는 (가)와 (나)가 대화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 2) 〈보기〉에서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과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가)와 (나)가 각각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대화를 나누는 인물들이 누구인지도 구분해 두는 것이 좋다.
- 3) 이렇게 (가)와 (나)에서 구분해 둔 내용과 〈보기〉의 설명을 종합하여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문제를 해결하자.

— 보기 —

- 1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 2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 3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안정한 표현은 이러한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 준다.

**정답 설명**

② (가)의 '이내'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그대'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판단 경로**

- 1) (가)는 갑산의 백성들이 과도한 공채와 신역에 시달렸던 현실이 담긴 작품이므로, 〈보기〉에 따르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에 해당한다.[〈보기〉-2]
- 2) (가)의 '이내' 말씀은 과거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 우리 조상 남쪽 양반 ~ 체면 보아 사양터니]한 뒤에, '원수인의 모해'로 자신이 균역을 지게 되면서 온갖 신역을 부담하게 된 부조리한 현실을 밝히고 있다. 즉 자신이 왜 살던 곳에서 도망을 치려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내' 말씀은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이 아니라, 부조리를 해결할 수 없으니 현실을 도피하겠다는 입장에 가깝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설명**

①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진 사연은, 당시 갑산 백성이 겪었음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군.

**판단 경로**

- 1) (가)의 '그대'[→ '생원인지 초관인지']는 도망하려는 '자네'[→ '갑민']에게 도망하지 말고 '네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인삼'을 캐고 '돈피'를 잡아 '공채 신역'을 갚은 후에 그 나머지를 비싼 값에 팔아 살림살이를 장만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2) 이러한 '그대'의 권유를 받은 '자네'는 자신이 과도한 신역으로 고통받게 된 사연을 풀어나며 도망하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때 '자네'가 풀어진 사연은 당시 갑산 백성이 신역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보기〉-2]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③ (나)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지는군.

**판단 경로**

- 1) (나)에서 선행하는 화자는 '아희들'에게 '고기'를 소에 실어 누군가에게 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아희들'은 '우리도 서주에 일이 많아 바빠 가는 길이며 가 전할동 말동 하여라'라며 자신들도 바빠서 '고기'를 전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한다. 여기서 '우리'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을 듣는 상대이자 그 요청에 대답하는 인물인 '아희들'이다.
- 2) 선행하는 화자는 '아희들'에게서 '우리'가 '고기'를 전달해 주겠다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요청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고 있다. 즉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지면서 재미가 생겨나고 있다.[〈보기〉-3]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경로 이탈**

- 1) 〈보기〉에서 (가)와 (나) 모두 대화체를 사용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나)의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 2) (나)의 초장과 중장은 '아희들'이라고 부른 화자가 한 말로, 이때의 청자는 '아희들'이다. 초중장과 달리, 종장의 화자는 '우리'인데,

중장의 요청에 대해 대답을 하고 있으므로 이때 ‘우리’는 곧 ‘아희들’이다. 여기서 ‘아희들’과 ‘우리’가 같은 인물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희들’과 ‘우리’를 다른 인물로 생각해 이 둘 사이의 대화라고 (나)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면 해당 선지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이처럼 대화 장면이 나올 때는 화자와 청자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각각이 하는 말의 내용을 구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④ (나)의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불완전한 표현이 된 것은 이 작품이 내용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는 것을 드러내는군.

**판단 경로**

1)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아희들’에게 ‘고기’를 ‘네 소 공동’에 있어다가 주렴’이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에게 ‘고기’를 주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어서 불완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기>에 따르면 ‘불완전한 표현’은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에 나오는 ‘불완전한 표현’을 통해 이 작품이 내용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3]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⑤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 먹이는 ‘아희들’을 불러 말을 건네고 있어 작품의 상황이 극 중 장면처럼 보이는군.

**판단 경로**

1) (가)에서는 ‘그대’와 길 가는 ‘자네’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불러 말을 건네며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자네’는 살던 곳을 떠나겠다고 ‘그대’와 다른 입장을 보인다.

2) (나)에서 선행하는 화자는 소 먹이는 ‘아희들’을 불러 자신이 잡은 ‘고기’를 누군가에게 전해 달라며 말을 건네고 있다. 그러나 ‘아희들’ [→ ‘우리’]은 바빠서 전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며 선행하는 화자와 다른 입장을 보인다.

3) <보기>에 따르면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한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고 하였다. (가)와 (나) 모두 대화가 드러나면서 작품 속 상황이 극 중 장면처럼 보이고 있다. [<보기>-1]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기출문제집 이감이 만들면 다르다!

2026 수능 대비

## 이감으로 기출 독서 문학



### 이감으로 기출 독서

- 이감 자체 개발 신규 문항 수록
- 모든 문단을 파헤치는 문단별 OX 문제 제공
- 올바른 독해 과정을 보여 주는 상세한 지문 분석 수록
- 선지의 근거를 낱말이 분석하는 단계별 문항 해설 제공

### 이감으로 기출 문학

- 기출과 연계 학습이 가능한 이감의 <보기> 수록
- 꼭 알아 두어야 하는 필수 문학 개념어 제공
- 작품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풍성한 작품 분석 수록
-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문항 해설 제공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01. 출제 경향

올해 수능의 화법과 작문은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웠다.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평이했고 정보량도 많지 않은 데다 선지의 내용도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개 화법과 작문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지문 자체가 어렵거나 선지가 까다로워서 지문과 선지의 내용을 일일이 점검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문의 내용이나 선지의 까다로움이 덜해서 문제 풀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다. 다만 오답률이 30% 정도 되는 문항이 두 개 출제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언어와 매체가 선택과목으로 등장한 이래 꾸준히 지속되는 양상이다. 그렇지만 ‘발표(35~37번)’, ‘대화-건의문(38~42번)’, ‘정보 전달 글(43~45번)’ 등 화법과 작문에 자주 출제되던 세트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감 모의고사를 통해 해당 세트들을 자주 학습한 수험생들이라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생소함이나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화법과 작문에서의 EBS 교재 연계는 언제나 그렇듯 연계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화법에서 다룬 ‘식물’이라는 소재가 EBS에서 다룬 ‘봄꽃’이라는 소재와 연결되거나 작문에서 언급한 ‘탄소 배출’에 관한 내용을 EBS에서도 다루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EBS 교재를 활용할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 자체보다는 각 세트에서 다루는 문항을 위주로 출제 패턴을 눈여겨보길 바란다.

### 02.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 [35~37] 화법(발표) 식물이 살아가는 몇 가지 독특한 방식

화법 세트에 또다시 ‘발표’가 출제되었다. ‘발표’는 평가원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식으로, 지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5회 연속 출제되고 있다. 화법에 등장하는 세트로는 발표, 강연, 연설, 라디오 방송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발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이라면 ‘발표’ 세트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수능의 ‘발표’ 지문에서는 ‘식물이 살아가는 몇 가지 독특한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지문의 내용이 평이한 수준이어서 지문 독해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문항 구성 역시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35번), 발표자의 자료 활용 방안(36번), 청중의 듣기 활동(37번)’으로, ‘발표’에서 전형적으로 다루는 문항들이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 [38~42] 화법-작문 통합(대화-건의문) 학교 교훈 변경 건의

화법-작문 통합에는 ‘대화 (가)’와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건의문 (나)’로 구성된 세트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학생들이 글쓰기를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대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는 형식은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후 통합 세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으며, 작년 수능 이후 화법-작문 통합 세트에서 4회 연속 출제되고 있다. 지문은 ‘교훈 변경’에 관한 것으로, 특별히 이해해야 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지문 독해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해당 학교의 교훈이 무엇이기에 변경하려는지에 관해서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교훈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많은 학생들이 교훈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모호한 진술만 제공하고 있어 내용이 없다는 인상을 주었다. 문항은 ‘대화에서의 의사소통 방식(38번), 대화의 내용 파악(39번), 대화가 건의문에 반영된 양상 파악(40번), 제시된 건의문의 특성 이해(41번), 고쳐 쓰기(42번)’로 화법-작문 통합 세트에서 자주 다루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세트의 40번 문항에서의 오답률이 38%로 다소 높게 나왔는데, 대화가 글에 반영된 양상을 파악하는 40번은 작문 세트에서 자료 활용 방안을 묻는 45번과 함께 오답률이 꾸준히 높게 나오는 문항이다. 40번 문항은 (가)와 (나) 두 가지 지문을 통합하여 이해하는 문항으로, 두 지문의 내용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지문과 선지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 수험생들이 자주 실수를 하고 있다. 화법과 작문에서 (가)와 (나)를 함께 이해하는 문항의 오답률이 매번 높았다는 것을 감안하고, 해당 문항을 풀이할 때에는 조금 더 긴장할 필요가 있다.



## 문항 해설 40번

### 정답 설명: ④

제시된 건의문의 작성 절차를 고려할 때 (가)의 대화 내용이 (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가)의 [D]에서 ‘학생 2’는 ‘교훈 변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자’고 이야기하였다. 해당 발화는 @[→ 건의 내용 및 근거 제시]를 고려하여 (나)의 문단4에서 ‘학생회에서 설문 조사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교생의 91.8%가 교훈 변경에 찬성했’다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교훈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 내용에 대한 근거를 [D]에서 ‘학생 2’가 언급한 설문 조사 방법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반영되었다는 ④번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오답 설명

- ① (가)의 [A]에서 ‘학생 3’은 ○○교 교가의 가사 내용이 개교 당시에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가사가 바뀌었다고 하였다. 해당 발화는 (나)의 문단2에 ‘○○교의 변경된 교가 가사는 이전과 달리,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한 삶을 강조한다’는 내용으로 반영되었다. 학생들의 삶이 예전보다 행복해졌음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② (가)의 [B]에서 ‘학생 3’은 학교의 교훈이 시대에 맞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고 누구나 공감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발화는 (나)의 문단3에 ‘지금 우리 학교의 교훈은~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제 상황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교훈 내용이 구성원의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내용은 (나)에 언급되고 있지 않다.
- ③ (가)의 [C]에서 ‘학생 1’은 ‘교훈을 바꾸는 일도 교가를 바꾸는 것만큼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교가보다 교훈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또한 (나)에서는 교훈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을 뿐 새로운 교훈을 제안받아 달라고 건의하고 있지 않다.
- ⑤ (가)의 [E]에서 ‘학생 1’은 교훈 변경을 학교에 건의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 해당 발화는 (나)에서 교장 선생님을 예상 독자로 하여 인사말을 제시하며 서술되고 있을 뿐이다. 지역 학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 [43~45] 작문(정보 전달 글) 지속 가능 항공유

작문 세트의 지문은 학생이 학교 신문이나 교지에 게재한 '초고'의 형식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다. 올해 수능 작문 지문은 환경의 날을 맞아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해 알리는 글을 교지에 작성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 항공유라는 소재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친환경 연료에 대해 다루고 있고, 지문의 내용도 비교적 쉬워서 지문 독해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문항 구성 역시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43번), 초고의 끝부분 작성(44번), 초고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 활용 방안(45번)'으로 작문 세트에서 반복 출제되는 것들이라 문제 풀이에 따른 생소함도 없었을 것이다. 다만 작문 세트에서 자료 활용 방안을 묻는 문항의 오답률은 비교적 높게 나오는 편이므로 해당 문항을 풀이할 때에는 지문과 <보기>, 선지에서 연결되는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문항 해설 45번

#### 정답 설명: ②

<보기>의 ㄱ-2는 지속 가능 항공유 필요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 주는 그래프로, 2050년에는 2025년보다 56.125배가 필요할 전망이다. 그리고 '초고'의 4문단을 보면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국가가 점점 늘고 있고, 유럽 연합은 이 항공유의 혼합 비율을 점차 높여 2050년에 70%까지 높일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ㄱ-2의 자료는 4문단에 제시된 내용에 따른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②번 선지에서는 ㄱ-2를 지속 가능 항공유의 혼합 비율을 2050년에 70%까지 높이는 근거로 4문단에 추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이 아니다.

#### 오답 설명

- ㄱ-1에는 기차, 버스, 비행기, 소형 승용차 등의 운송 수단별 탄소 배출량을 보여 주는 표가 제시되어 있다. 표를 보면 비행기의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고 기차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ㄱ-1을 활용하여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환경을 생각해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1문단에 보강하는 것은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 ㄷ에는 지속 가능 항공유의 원료로 작물을 사용할 경우 작물 재배로 인한 삼림 훼손과 식량 부족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의 인터뷰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ㄷ을 활용하여 해당 내용을 유럽연합에서 작물 기반 바이오 연료 사용을 제한하게 된 이유로 2문단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 ㄱ-1은 ①번 선지 참고) ㄴ에는 지속 가능 항공유를 1%만 혼합해도 약 16만 톤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다는 신문 기사가 제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ㄱ-1과 ㄴ을 활용할 경우 다른 운송 수단 대비 탄소 배출량이 많은 비행기에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 감축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ㄱ-1과 ㄴ을 지속 가능 항공유의 친환경적 특징을 보여 주는 근거로 3문단에 보강하는 것은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 ㄷ-2는 정답 설명 참고) ㄷ에는 지속 가능 항공유의 원료로 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삼림 훼손과 식량 부족 등이 우려된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미세 조류, 이산화 탄소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인터뷰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ㄱ-2와 ㄷ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 항공유의 예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공급에 제약이 있다는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여 생산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 항공유의 공급 역량을 강화하려는 이유로 5문단에 보강하는 것은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이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01. 언어

#### ▶ 총평

언어는 국어사, 의미론, 음운론, 통사론 영역에서 고루 출제되었다. 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어졌던 개념 위주로 출제되었으나, 선지별로 판단해야 할 요소가 많아 다소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세 국어의 문헌별 표기 방식에 대해 묻는 지문은 다루고 있는 소재가 다소 낯설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 [35~36] 국어사

중세 국어의 문헌별 표기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소재도 낯설뿐더러 지문에 정보가 밀도 있게 제시되어 이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지문의 어떤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여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가가 정답 판별의 핵심이었다.

##### [37] 의미론

동음이의어, 다의어, 반의어, 유의어 등 단어끼리 이루고 있는 의미 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이에 더해 필수 성분 및 서술어의 자릿수를 함께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인 문법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다소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고난도 문항 해설 37번

### 문항 설명

- 1)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 2)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 및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가 정답 판별의 핵심 요소였을 것으로 보인다.

### 정답 설명 : ㉓

‘나는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의 ‘듣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단어이고, ‘충고까지 잔소리로 듣지 마.’의 ‘듣다’는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단어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위 문장의 ‘듣다’와 아래 문장의 ‘듣다’는 다의어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필수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므로 ㉓의 예에 해당한다.

### 오답 설명

- ① 위 문장의 ‘불’과 아래 문장의 ‘불’은 의미적 연관성이 있는 다의어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㉔의 예에 해당한다. 위 문장의 ‘불’은 ‘물질이 산소와 화합하여 높은 온도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것.’의 의미로, 아래 문장의 ‘불’은 ‘불이 타는 듯이 열렬하고 거세게 타오르는 정열이나 감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로 쓰였다.
- ② 위 문장의 ‘치다’와 아래 문장의 ‘치다’는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어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㉑의 예에 해당한다. 위 문장의 ‘치다’는 ‘붓이나 연필 따위로 점을 찍거나 선이나 그림을 그린다.’의 의미를, 아래 문장의 ‘치다’는 ‘손이나 손에 든 물건으로 물체를 부딪게 하는 놀이나 운동을 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 ④ 위 문장의 ‘얽다’는 ‘빛깔이 진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그 반의어로 ‘질다’를 들 수 있다. 한편 아래 문장의 ‘얽다’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깊지 아니하고 가볍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그 반의어로 ‘깊다’를 들 수 있다. 따라서 ④번 선지에 제시된 단어들은 다의어의 각 의미 간에 반의어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위 문장의 ‘오다’는 서술어 이외에 주어[→ ‘봄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고, 아래 문장의 ‘오다’는 서술어 이외에 주어[→ ‘성공은’]과 부사어[→ ‘노력에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⑤번 선지에 제시된 단어들은 다의어의 각 의미 간에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38] 음운론

자음의 음운 변동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으나 자료 각각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을 것이다.

## [39] 통사론

간접 인용 표현을 바탕으로 원 발화를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인용 표현에 대해 기존에 출제되던 유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출제되어 형식상 낯설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발화라도 간접 인용될 때 같은 형식을 가질 수 있다는 <보기>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선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 02. 매체

### ▶ 총평

올해 수능의 매체는 대체로 평이했으며,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다. 매체는 오답률이 높게 나오는 언어와 함께 치러 지는 탓에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다. 특히 지난 9월 모의평가의 매체는 오답률이 한 자리를 넘는 문항이 없을 정도로 평이했는데, 올해 수능에서는 44번 문항의 오답률이 30%를 넘어 9월 모의평가를 경험했던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44번을 제외한 문항들의 오답률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낮았던 만큼 매체가 어렵지는 않았다. 그리고 매체 자료로 등장한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나 블로그, 누리 소통망 대화 등도 기출에서 다른 것들이어서 매체 자료를 수용하는 데 따른 낯섦이나 어려움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항 구성 역시 매체 세트에서 항상 다루지는 ‘매체 자료에서의 특성 또는 정보 전달 방식(40, 42, 44번),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41번), 매체 언어의 표현 방식(43번), 매체 자료의 생산(45번)’ 등이어서 문제 풀이 과정에서 낯설거나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매체는 주제적 측면에서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매우 낮은 편인데, 올해 수능에서도 ‘학교 축제’라는 소재가 연계되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EBS 교재를 통해 내용적 측면의 연계를 고려하여 학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EBS 교재에서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비해 다양한 매체 자료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EBS 교재를 통해 다양한 매체 자료들의 특성을 파악해 두는 것이 향후 수능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 [40~43] 언어-매체 통합(온라인 실시간 방송-블로그 글)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

언어-매체 통합 세트에서는 평가원 기출에서 이미 출제된 바 있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과 ‘블로그’라는 뉴 미디어 두 개가 함께 출제되었다. 지문의 내용은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평이한 것이어서 지문 독해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다. 문항 구성은 ‘매체 자료에서의 특성 또는 정보 전달 방식(40, 42번),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41번), 매체 언어의 표현 방식(43번)’으로 지금까지 평가원 언어-매체 통합 세트에서 자주 다루던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매체에서 오답률이 상승하는 원인 중 하나는 ‘매체 언어의 표현 방식(43번)’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 [44~45] 매체(팸플릿-누리 소통망 대화) 학교 축제

매체 세트에는 ‘팸플릿’과 ‘누리 소통망’이라는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가 각각 하나씩 출제되었다. 지문은 학생회에서 제작한 학교 축제 팸플릿(가)를 본 학생회 학생들이 누리 소통망을 통해 대화(나)를 나누는 후 축제 게시판(45번)을 생산하는 내용이다. 지문의 정보량이 많지 않고 대화 내용도 평이한 수준이어서 지문 독해에 따른 부담감은 적었다. 문항 구성은 역시 ‘매체 자료에서의 특성 또는 정보 전달 방식(44번), 매체 자료 생산(45번)’으로 그동안 평가원 기출에서 자주 출제되던 것이어서 문제 풀이에 따른 어려움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중 44번 문항의 정답 선지인 ①번 선지의 내용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다소 중의적으로 읽힐 소지가 있었지만 경쟁 선지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을 정도로 나머지 선지들의 내용이 명확히 틀린 것이었다.



## 문항 해설 44번

### 정답 설명: ①

팸플릿인 (가)의 좌측 페이지 상단에는 ‘참별빛제 일정 안내’라고 하여 행사의 일정을 순서도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동아리 부스’ 행사가 가장 먼저 진행되고, 이어서 ‘토론 한마당’과 ‘세계 음식 체험’이 진행된 후, ‘댄스 공연’으로 마무리되는 행사의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①번 선지에서는 각 행사별 진행 절차를 순서도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고 했다. 각 행사라면 ‘동아리 부스’, ‘토론 한마당’, ‘세계 음식 체험’, ‘댄스 공연’ 등을 뜻하는 것이다. (가)에는 각 행사의 진행 절차, 예를 들어 ‘토론 한마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행사별 진행 절차를 순서도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는 ①번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각 행사별 진행 절차라는 것을 ‘동아리 부스’, ‘토론 한마당’, ‘세계 음식 체험’, ‘댄스 공연’이라는 행사의 진행 절차로 이해하면서 오답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선지의 내용이 중의적으로 읽힐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선지들의 내용이 명확히 틀렸기 때문에 ①번 선지를 출제자의 의도대로 다시금 이해하고 정답으로 선택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 오답 설명

- ② (가)의 우측 페이지 하단에는 안전을 위한 행사별 유의 사항이 표에 정리되어 제시되고 있다.
- ③ (가)의 우측 페이지 상단에는 ‘QR 코드를 찍으면 부스별 활동 소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QR 코드가 제시되어 동아리 부스별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가)의 좌측 페이지 하단에는 행사별 장소가 안내되어 있는데, 이때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모양의 기호[→]를 활용하여 알려 주고 있다.
- ⑤ (가)의 우측 페이지 상단에는 동아리 부스 행사에 대한 안내가 제시되어 있는데 활동 유형별[→ 보고서 발표, 작품 전시, 체육 이벤트]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III

## 202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조언

### 01. 설부른 난이도 예측은 금물이다.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대로 구현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출제자의 의도와 달리 예상보다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가 쉽게 출제되면 크게 문제될 것 없지만, 쉬운 것을 예상했다가 어렵게 출제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볼 수능이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하에 평소에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문제를 틀리면 위안 삼아 '이런 문제 안 나올 거야.'라며 문제를 부정해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 가지 출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유연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 02. 독서 영역에서 실력을 충분히 함양할 필요가 있다.

독서 영역에서 굳건한 실력을 길러 놓아야 80분의 국어 시험 운용이 순조로울 수 있다. 2025학년도 수능은 지문이 다소 쉬워지고 선지 판단이 어려워지는 양상을 띠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독서에서 강해지기 위해, 수능에 출제될 만한 제재가 담긴 지문을 선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능에 나올 다양한 지문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량이 많은 지문, 이해가 어려운 지문, 불친절한 지문 등 다양한 지문에 자신을 노출시켜 실력을 끌어올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문 이해 못지않게 선지 독해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다. 특히 길고 복잡한 선지들을 자주 접하면서 그러한 선지들에서 틀린 포인트를 잡아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독서 영역은 지문의 구조, 제재, 문제 유형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 오고 있다. 특정 경향에만 익숙해지려 하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출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 03. 문학 영역은 EBS 연계 지문과 비연계 지문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해야 한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EBS 연계 출제 비율이 50%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문학은 연계 작품에 대한 대비와 낯선 작품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해야 한다. EBS 연계 작품이 수능에 출제되면 시간 관리 측면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수능에 출제될 만한 EBS 작품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한 학습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비연계 지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비연계 지문은 난도가 높은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장르별로 작품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익힌 후에는 실전 문제를 통해 낯선 작품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가령 시의 경우에는 화자가 처한 상황, 대상의 특성, 화자의 정서·태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소설의 경우에는 인물이 나올 때마다 체크하고 인물의 심리, 인물 간의 관계에 주목해서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문학은 작품에 대한 독해 못지않게 선지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도 중요해졌다. 최근 문학 선지들의 내용 밀도가 높아지면서 수험생들이 선지를 주관적으로 읽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공부한 작품이 출제됐다고 하더라도 선지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해당 선지의 논리에 맞게 읽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출문제에 등장하는 선지의 표현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작품 내용을 선지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익혀 두거나, 최근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로 훈련을 하는 것도 좋다.

### 04.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선택은 신중히 하되, 선택 후에는 공부에 매진하자.

수험 생활 내내 선택과목을 고민하며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평가원은 선택과목의 보정 절차를 만들어 특별히 어느 쪽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선택한 후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부하지 않고 수능 직전까지 유리한 과목만 찾아다니는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

참고로 화법과 작문은 개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적은 대신 꾸준한 실전 연습이 필요한 과목이다. 언어와 매체는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해 두면 유리한 대신 구체적인 용례에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도 개념 공부를 확실히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 IV

## 수능과 이감의 연계 양상

독서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독서론 [1~3]	밑줄 굵기를 이용한 독서	수능완성 182쪽	-
인문 통합 [4~9]	개항 이후 조선에서의 개화 논의와 청일 전쟁 이후 중국에서의 과학 정신 논의	수능특강 71쪽 (이감 중요도 B)	2024 이감 시즌3 1차 2024 간쓸개 시즌3 1차
기술 [10~13]	확산 모델을 활용한 원본 이미지 복원	수능특강 170쪽 (이감 중요도 AA)	2024 이감 시즌6 5차 2024 간쓸개 시즌2 2차 2024 간쓸개 시즌6 5차 2024 간쓸개 시즌6 10차
사회 [14~17]	사이버 폭력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수능특강 38쪽 (이감 중요도 A)	2024 간쓸개 시즌6 3차 2024 파이널 간쓸개 II 2024 스페셜 간쓸개 법·경제

문학			
세부 영역	작품	EBS 연계	이감 연계
고전소설 [18~21]	작자 미상, 「정을선진」	수능특강 152쪽 (이감 중요도 AA)	2024 이감 시즌3 4차 2024 이감 시즌6 8차
현대시 + 수필 [22~27]	(가) 장석남, 「배를 밀며」 (나)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다)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수능완성 250쪽 (이감 중요도 B) 비연계 비연계	-
현대소설 [28~31]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비연계	-
고전시가 [32~34]	(가) 작자 미상, 「갑민가」 (나) 작자 미상, 사설시조	수능완성 168쪽 (이감 중요도 A) 비연계	2024 이감 시즌5 7차 2024 간쓸개 시즌5 7차 2024 간쓸개 시즌6 7차 2024 파이널 간쓸개 II

## 화법과 작문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화법 [35~37]	식물이 살아가는 몇 가지 독특한 방식 (발표)	수능특강 32쪽 수능완성 150쪽	2024 이감 시즌5 3차 2024 이감 ON 8차 2024 강대 2차 2024 이감 파이널 엮지 2차
화법-작문 통합 [38~42]	학교 교훈 변경 건의 (대화-건의문)	비연계	2024 이감 시즌5 5차 2024 이감 시즌6 8차 2024 이감 시즌6 10차
작문 [43~45]	지속 가능 항공유 (정보 전달 글)	수능특강 26쪽 수능특강 67쪽 수능완성 202쪽 수능완성 259쪽	2024 이감 시즌2 2차 2024 이감 시즌3 1차 2024 이감 시즌5 2차 2024 이감 ON 4차 2024 화법과 작문 N제

## 언어와 매체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국어사 [35~36]	중세 국어의 문헌에 따른 표기 방식의 차이	수능특강 88쪽 수능특강 100쪽	2024 이감 파이널 엮지 2차 2024 언어와 매체 N제
의미론 [37]	단어의 의미 관계	수능완성 96쪽	2024 이감 시즌3 2차 2024 이감 ON 10차 2024 언어와 매체 N제
음운론 [38]	자음의 음운 변동	수능특강 60쪽 수능완성 87쪽	2024 이감 시즌6 10차 2024 언어와 매체 N제
통사론 [39]	간접 인용	수능특강 82쪽 수능완성 230쪽	2024 이감 시즌2 2차 2024 이감 시즌6 3차 2024 이감 ON 4차
언어-매체 통합 [40~43]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 (온라인 실시간 방송-블로그 글)	비연계	2024 이감 시즌3 2차 2024 이감 시즌5 2차 2024 이감 시즌6 3차 2024 이감 시즌6 8차
매체 [44~45]	학교 축제 (팸플릿-누리 소통망 대화)	수능특강 218쪽	2024 이감 시즌5 5차 2024 이감 시즌6 6차 2024 이감 시즌6 7차 2024 이감 ON 10차